

광주 각화동 조합아파트 신축 놓고 교육청-시행사 갈등

“학생 수용 대책부터” vs “학교용지 부담금만”

각화초교 수용 능력 포화상태
무리한 사업추진...승인 불투명

광주시 북구 각화동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센트럴파크’가 ‘학교’라는 암초에 걸렸다. 주변 초등학교 수용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사업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교육청은 인근 학교의 증축이 불가능해 학생수용 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아파트 건설을 강행한다고 해도 입주후 초등생 자녀를 보낼 학교가 없다는 의미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이 북구 각화동 583-9번지 일원에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04세대 등 총 99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

았고, 현재 광주시가 건축계획 심의를 하고 있다. 사업 적정성이 인정되면 다음 단계로 교육청과 학교수용계획에 대해 반대시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돼야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교육청이 학교수용계획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실제 센트럴파크 측은 지난해 학교용지 확보 등 학교수용계획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의견을 물었고, 교육청은 해당 통학구역인 광주각화초의 경우 학교시설을 증축할 수 없어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인근 학교인 무등초와 문산초의 경우도 통학거리가 먼데다 학교시설도 부족해 학생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각화동에서만 아파트 개발이 3곳에서 진행돼 각화초의 학생수용이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실제 각화동에는 내년 7월 골드클래스(716세대), 내년 12월 서희스타힐스(946세대), 2018년 7월 힐스테이트(740세대)가 잇따라 입주예정이다. 입주가 끝나면 초등학생이 각각 134명, 227명, 168명 등 총 529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각화초 교실 14개를 전환해 골드클래스와 서희스타힐스에 사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2018년에 8개실을 증축해 힐스테이트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2개실 확보가 수용 최대치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더 이상 교실을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학생수 210명이 유발되는 888세대 규모의 센트럴파크가 건설되면, 8개실이 더 필요한데 각화초는 증축이 불가능해 학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근 초등학교로 배치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무등초의 경우 여류 교실이나

전환 가능한 교실이 없고, 문산초는 3개실을 늘릴 수 있지만 8개실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학거리도 문제다. 무등초는 1.5km 떨어져 통학시간이 22분 소요되고, 문산초는 1.6km로 25분이나 걸린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학교를 신축해 교육청에 공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측은 학교용지부담금만 내면 되지 학교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학생수용 협의요청이 오지 않은 상태다. 정식으로 협의 요청이 오면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입주하더라도 자녀를 보낼 학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사업에 앞서 반드시 학교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실 부족한데...예산 없어 신·증축 골머리

광주 14개교 1650억 필요 불구 10개교 비용 확보 못해

광주 교육청이 아파트 개발로 학생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학교 신·증축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계획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따라 교실 증축이나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학

교는 14개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늘어나는 학생들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학교에서 168개의 교실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1650억원으로 추산됐다.

교육청은 하지만 본촌·조봉·각화·학강 초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10개 학교의 신·

증축 비용(1381억)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학교 신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존 학교 증·개축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의 1000분의 8)만으로는 300억원대의 학교 신축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광주시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교

육청으로 보내주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취약할 돈조차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 판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현행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 1999년부터 주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1075억원 뿐 아니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주려고 하고”고 꼬집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전자발찌 풀고 심야 술집 순례 30대 검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심야에 주거지를 벗어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15일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심야에 주거지를 이탈한 황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특정범죄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대상자가 전자발찌와 함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장치가 한 세트로서 위치추적수신 기능을 하는 탓에 이를 어기면(분리하면) 위법이다.

황씨는 성폭행 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오는 2017년 3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받았다. 또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외출도 제한됐다.

황씨는 그러나 이날 새벽 12시 7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자신의 원룸에 휴대전화 기기의 추적장치를 둔 채 집을 빠져나왔다. 광주보호관찰소 측은 황씨 주거지에 설치해둔 재택감독장치를 통해 주거지 이탈을 확인하고 이날 새벽 3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유령업소 등을 조사한 끝에 오전 6시께 주거지 인근에서 황씨를 검거했다.

황씨는 경찰에서 “6시간 동안 술집 1곳과 노래방 2곳에서 혼자 술 마시고 놀았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지난 11일 밤에도 외출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집에 갔다가 보호관찰소측의 명령으로 2시간 30분만에 복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영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 여종업원 사망’ 업주 부부 실형 선고

부인 2년6개월·남편 2년형

여수 유령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 업주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정현우 판사는 15일 여종업원 상습 상습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수 모 유령주점 업주 박모(여·43)씨와 남편 신모(47)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또 CCTV 모니터 등을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이모(2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유령주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가학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누워있는데도 안타까워하거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종업원을 회유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항변만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여수의 한 유령주점에서 여종업원 강모(34)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10일 오후 9시40분께 숨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난폭운전·보복운전 “NO” 1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대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박인철 광주지방경찰청장, 모범운전자 등 참석자들이 ‘난폭운전, 보복운전 NO’를 외치며 교통안전운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별 통보 여친에 빙초산 뿌려

3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뿌린 빙초산 원액에 얼굴 등을 맞아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광산경찰은 15일 여자친구의 얼굴 등에 빙초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낮 12시10분께 광산구 소촌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여

자친구 A(37)씨를 향해 빙초산(180ml)을 뿌린 혐의다. 얼굴과 팔, 다리 등에 빙초산은 맞은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고 연락도 받지 않아 화가 났기에 마트에서 구입한 빙초산을 얼굴에 뿌렸다”고 진술했다. 빙초산은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갈 경우失明 위험이 있는 산성물질이다. /*김영호기자 khh@kwangju.co.kr

음주 난동 20대여, 말리는 동거남에 흥기 휘둘러 경찰서행



○...아침부터 술에 취해 세들어 사는 건물 옥상에서 난동을 부리던 20대 여성이 자신을 말리는 동거남에게 흥기를 들이밀었다가 경찰서행.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구모(여·20)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원룸에서 동거남

정모(23)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

○...이런 시간부터 술에 취했던 구씨는 이날 원룸건물 옥상에서 유리병을 던지는 등 술 주정을 부렸는데, 경찰은 “구씨가 자신을 말리는 정씨가 마음에 들지 않다가 흥기에 집안이 있던 흥기를 던질 것 같다”고 설명.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and [연립주택/다세대/빌라].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ections for [대지/임야/전답],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자동차, 중기], and [기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를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물건일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정상부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 ② 공유자가 민집합명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 매수보증금의 마감으로 종료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일경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일예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금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7. 1.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7. 8. [금]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봉투에 봉합하여 입찰방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공용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유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일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방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방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중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저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는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까지 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취소한다. 다만, 매각허가일로부터 지정된 3일전까지 증정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부서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허가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본세와 지방공과세를 납부한 후 등본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본세영수증물품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우체국중앙발행요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확정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공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매각허가 개통이 있는 위치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먼저 유치인이 있을 때에는 그 유치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입찰인정의 유효한 채권과 관련하여 매각일 7일 전부터 매각장 운영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리를 첨부한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열람을 청할 수 있음. 열람을 청한 후 열람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에서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유의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인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일예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일예에 해당하는 물건이며, 출생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하면 계산된 의 공고나 법원에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⑨ 매각일 공고의 유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판문각] → 법원행정처(문헌)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 열람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 있고 이러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신청, 청구중립 수 있으므로, 관공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계산된 매각일예의 공고나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영수